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신뢰도, 네트워크 그리고 적응도 분석을 중심으로*

주재원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부교수**

김부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정중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미디어 수용 행태와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대인 신뢰, 제도 신뢰),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적응도(체제 적응도, 사회 적응도) 간의 관계를 사회자본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북한이탈주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이용은 제도에 대한 신뢰,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적응과 관계가 깊으며 매체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다. 둘째, 미디어 이용(TV, 신문)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체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신문 구독과 사회 적응 간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신문과 인터넷 매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축적 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단순히 정보 전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자본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북한이탈주민, 미디어 이용행태, 사회자본, 신뢰도, 인적 네트워크

* 이 논문은 한국개발연구원 (2018)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조병구 편) 제5장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수용과 재현 (김부열, 주재원 공저)」의 일부 내용을 추가 보완,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힌다.

이 논문은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제20180125호의 지원을 받아 게재되었음.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3A2075117).

** jwjoo@handong.edu, 주저자

*** bkim@kdischool.ac.kr, 교신저자

**** econjwc@snu.ac.kr

1. 문제제기

한국 전쟁 이후 고착화된 민족분단의 현실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했다. 특히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소련을 위시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연쇄적인 붕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유입을 촉발했다. 실제 1990년-1994년 사이 연평균 8.5명에 불과했던 북한이탈주민¹⁾ 수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천명대로 증가하였고, 2006년-2011년 사이에는 2천명대로 급증하였다가 2012년부터는 다시 연평균 1천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9월 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누적 북한이탈주민 수는 32,147명으로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유입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사회적/학술적 관심도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59호 제정일 1997. 1.13 시행일 1997. 7. 14) 등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사회로 정착하려는 이주민들이 적응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겪게 되는 여러 마찰은 보편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의 일반 구성원들과 문화와 역사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념 대립과 남북관계의 부침 등으로 인해 적대국에서 온 외국인과 같은 냉소적 시선을 받는 특수성을 보인다 (김병로, 2014). 이것은 곧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주재원,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에게 혈연으로 이어진 ‘한민족’으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이주민’이라는 이중정체성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같이 일반적인 이주민 개념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여느 외국인과 달리 한국어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미디어 접근과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게 생소한 각종 외래어와 남북한 간 문화적 격차 등은 이들의 미디어 수용 정도를 현저하게 낮추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사용 현황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 내에서 그들의 문화정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통일부, 2009)를 일컫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제한한다.

체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사회 및 문화 적응에 있어 미디어 수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해 왔다(Kim & Gudykunst, 1988; Moon & Park, 2007; Subervi-Velez, 1986).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의 주류 미디어를 수용하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미디어는 불확실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hanahan & Morgan, 1999).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국내방송 수용행태를 유형별로 분석한 이창현(2000)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방송 뉴스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의 일부로 해석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과반(57.5%)이 탈북 전 남한의 방송 콘텐츠를 접했고, 텔레비전 시청이 탈북의 직, 간접적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주철(2003)에 따르면 북한에서 <KBS>의 대북 라디오방송인 사회교육방송을 청취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한편, 남한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 수용이 단순히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사회화 과정의 일부가 아닌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핵심 활동임을 방증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수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미디어 환경은 해마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수용 실태와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수용 행태가 남한 사회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자본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이용량이 사회자본을 대표하는 개념인 신뢰도(대인 및 제도), 인적 네트워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 후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사회자본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남북 교류의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 문헌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과 미디어 이용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정보의 원천으로 매스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Ball-Rokeach & DeFleur, 1976). 즉,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 연결망으로 유입되고,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이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양식은 다시 사회와 미디어를 변화시키게 된다(DeFleur & Ball-Rokeach, 1989). 발로키치와 드플러의 미디어 의존이론을 적용하면, 매스미디어는 전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룹에게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대한 위협이나 불확실성은 정보에 대한 욕구를 높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강태영·황유선·강경미, 2011; Ball-Rokeach, 1985; Gao & Gudykunst, 1990). 이주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의 이질적 문화와 가치관에 노출되는 것은 그들에게 불확실성과 위협이 높아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Berry, Kim, & Boski, 1987; Kim & Gudykunst, 1988). 이들은 정보 수집을 위해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자 자원을 투자하게 되는데(Kim, 1977; Lee & Tse, 1994; Moon, Kim, & McLeod, 2003; Moon & Park, 2007), 이 중 매스미디어 이용은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미디어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주민의 미디어 수용 행태를 연구해 왔으며, 이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사회의 주류 담론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박소라, 2008; Jeffres & Hur, 1983; Kim, 1977; Moon & Park, 2007; Walker, 1999). 미국 이주한국인들의 현지 미디어 이용량이 높을수록 현지에 더욱 빠르게 적응한다는 연구(Moon, Kim, & McLeod, 2003), 미국 거주 한국인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하더라도 미디어 이용 접근성이 현지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Kim, 1977), 이주민이 이주 사회의 미디어 수용을 거부한 채 자국의 미디어만을 이용할 경우 현지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구(Rios & Gaines, 1998), 그리고 이주한 국가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수록 해당 국가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더욱 잘 수용함을 보여주는 연구(Lee & Tse, 1994)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미디어 이용과 이용자들의 현실인식을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Shanahan & Morgan, 1999; Yaple & Korzenny, 1989), 이주민들에게 미디어 이용은 심리적 부담이 적은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써, 기초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이며, 미디어는 새롭고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미디어를 통한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은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Moon & Park, 2007). 문화정체성이란 오랜 기간 동안 한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조건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온 것인데(박소라, 2008), 공통된 경험과 습관, 언어, 종교와 같이 집단이 문화적 속성을 공유하면서 얻는 주관적인 느낌과 가치를 의미한다. 이 공통된 경험은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 언어, 문화 등으로 재구성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집단의 공통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형진과 도미닉(Woo & Dominick, 2003)은 이주민들이 매스미디어 이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고 내재화한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최진희와 주정민(2014)의 국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TV와 인터넷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근거로 들었다. 정의철과 정용복(2016)은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반응과 그들의 미디어 이용, 사회관계,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취업이나 생활정보, 한국어 등과 같은 정보 및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관계를 맺으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주민으로서의 '타자화' 경험과 고유한 문화 간 정체성을 구성하고 협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정의철과 정미영(2018)은 이주여성들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나누면서 소통과 문화의 주체가 되고, 초국적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이주민의 미디어 참여와 소통권의 확대는 그들의 다문화적 시민권의 토대를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미디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역시 이와 같은 사례를 잘 보여준다. 탈북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는 텔레비전이나 인쇄 매체, 그리고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통일방송연구소(1998)의 <탈북자 방송시청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남한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남한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고, 남한 입국 이후에도 텔레비전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민규와 우형진(2004)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가졌던 부정적인 태도가 TV 시청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TV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의 규범 및 가치 등을 학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주민들의 사회적응은 사회적 연결망을 조직하고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관련이 있다(염유식·김여진, 2011; 최정호·박선미, 2013). 우선 사회적 연결망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주민 스

스로 문화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해야 하는데(이민규·우형진, 2004), 이 때 미디어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미디어가 특정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 - 특히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에게 사회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Georgiou, 2006).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이라는 특수한 배경이 남한 사회에서 그들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례로 정병호(2004, 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정치사회학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삼가며, 새로운 소통집단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유지웅(2007)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의 접촉에 배타적이며 공통점이 많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더욱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염유석과 김여진(2011)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가족에 한정시키는 태도를 지적하였다.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들과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미디어학계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이창현(2000)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수용 행태를 연구한 초기 연구로서 그 가치가 높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방송을 수용하는 특성을 문화적응이라는 틀로 설명하는데, 이창현(2000)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방송 수용 행태에 따라 적극적 수용자(변화추구형)와 소극적 수용자(진통유지형)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러한 수용적 특성이 제한적이지만 문화적 적응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이어곽정래와 박승관(2006)의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이해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매스미디어 이용량과 장르별 이용패턴이 사회적응자원인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정치참여에 여러 가지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 결론을 보여준다. 한편 박정란과 강동완(2012)은 남한의 미디어가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반복된 외부 정보 접촉 기회가 줄 수 있는 기회와 한계에 대해 밝힌다. 이들에 따르면 미디어 접촉은 북한 내에서 이뤄진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넘어 인식의 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 미디어 중 어떤 특정 장르, 내용, 프로그램 등을 자주 접하는가에 따라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낙관론 혹은 비관론으로 경도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최근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조사를 살펴본 민희(2018)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사람들 및 새로운 사람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 훨씬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불안감이 강한 사람은 소셜 미디어를 자주 이용할수록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인다. 이

처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환경이 남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미디어 이용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미디어 이용 자체는 그들의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개인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인 네트워크, 상호호혜성의 규범, 신뢰로 정의된다(Putnam, 2000). 우선 네트워크는 개인이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망인데, 이 관계망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한다. 상호호혜성의 규범은 타인의 협조를 얻을 경우 자신도 타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규칙이나 압력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신뢰는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거래비용을 감소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재신·이영수, 2012).

문화사회학 영역에서 사회자본 개념을 최초로 논의한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자본'의 개념을 '축적된 역사'로 본다. 그는 사회자본 형태를 경제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자본 총 세 가지로 분류한 뒤, 사회자본이 사회관계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사회자본은 '현실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집합으로 상호 면식과 인식이 제도화되고 지속화된 관계망을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 소속이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Bourdieu, 1986). 즉 부르디외의 사회자본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 소속이 마치 소속원에게 신용 보증을 해 주듯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뜻한다. 그는 사회자본은 상호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결국엔 변형되고 위장된 형태의 경제적 자본이라고 주장한다(Bourdieu, 1986).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비영리적이고 공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발생하는 이유와 특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편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자본을 개인 간의 신뢰관계와 연결시킨다. 그는 사회자본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으로 보았는데(Coleman, 1988), 이는 효용의 극대화(maximization of utility)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관계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과 유사하다. 즉 콜만의 사회자본은 개인의 합리적 이해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계나 구조, 관계망을 뜻한다(Coleman, 1988).

부르디외와 콜만의 개념을 사회 현상에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퍼트남을 제외할 수 없다. 퍼트남(Putnam, 1993)은 사회자본을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

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 정의하는데, 그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인 신뢰와 네트워크를 각각 구체적(balanced, specific)/포괄적(generalized, diffuse), 수직적/수평적인 것으로 나눔으로써, 사회자본의 성격이 복합적임을 암시한다. 그는 사회자본의 핵심을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치를 지닌다'는 명제로 축약해 보였으며(Helliwell & Putnam, 2004),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사회자본을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 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 정의한다(Putnam, 1993). 즉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 조직으로 하여금 상호 이익을 위한 조직과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로 사회자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관한 전통적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신뢰는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로 파악된다(Fukuyama, 2001; Potres, 1998). 보다 분석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신뢰는 큰 틀에서 대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자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국사회가 높은 대인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반면, 제도적 신뢰도는 매우 낮은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배영, 2007; 이재열, 1998; 이준용·김은미·문태준, 2005).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한국사회 특유의 연고주의에 기반한 폐쇄적 집단성을 지적한다. 물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인적 신뢰가 제도적 신뢰를 압도하는 한국의 일반적 사회자본 모형이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사회적 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기존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대인적/제도적 신뢰도의 관계와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퍼트남(Putnam, 1995)이 1960년대 이후 미국시민들의 사회자본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텔레비전을 지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오락적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사회자본을 침식시키는 주범이며, 텔레비전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Putnam, 1995). 그러나 정보적 목적으로 텔레비전 시청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들어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다. 뉴스시청이 지지 후보의 결정이나 정치참여와 같은 행위에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고, 보도와 교양이 정치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다(Shah, 1998; Shah, McLeod, & Yoon, 2001). 텔레비전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선, 우선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기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노리스(Norris, 1996)와 샤희(Shah, 1998)는 정보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오락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갖게 됨을 분석하였다.

한편 가장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 구독의 경우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맥클라우드 외 (McLeod et al., 1996)는 신문 구독 빈도가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애착, 사회참여를 높인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제프리스, 이재원, 뉴엔도르프 그리고 앳킨(Jeffres et al., 2007) 역시 신문의 정보제공기능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며, 개인 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함을 근거로, 신문 구독이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사회활동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야마모토(Yamamoto, 2011)는 신문이 가진 사회적 결집능력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야마모토(Yamamoto, 2011)는 신문에서 다루는 뉴스 아젠다가 자신이 속한 지역이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를 내포하여 구독자들 간 가치를 공유하도록 도우며, 특정한 인물, 단체 혹은 행사 소개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발전과 통합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디어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최근 들어 인터넷과 SNS 같은 뉴미디어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인터넷은 기존 올드미디어와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며 언제나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상당수의 연구가 인터넷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나 접촉에서 야기되는 커뮤니케이션 격차 해소(Wellman, 1999, 2001)와 소통의 기회를 증가시켜 연대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인터넷의 이용이 온라인 공동체 내 열린 민주적 담론을 증진시키고(Sproull & Kiesler, 1991), 다양한 관점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Kapor, 1993), 집단행동에 동원(Schwartz & Oram, 1996; Tarrow, 1998)함으로써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강내원(2005)은 서울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텔레비전 시청량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는 반면 시민적 관여도는 증가하고, 특히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시청량은 대인적 신뢰와 시민적 참여 모두를 증진시킨다고 밝혔다. 김동운(2009)은 사회자본 개념의 다차원성이 개념화와 측정지표에 대한 불일치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념화 방식은 개별 연구주제나 분야에 따라 함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영과 강태영(2011)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근거로 하여 사회참여활동 및 인적교류 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매체 이용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의 미디어 이용 행위와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오디오/텔레비전/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변인들이 사회자본과 정적/부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은미와 조성동(2012)은 TV시청이 인식적 차원에 지

니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하부 개념들인 시민규범, 사회신뢰, 사회활동 등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TV 뉴스 시청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드라마·오락 장르 시청은 인식적 차원의 시민규범에 부정적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동윤과 이강형(2012)은 미디어 이용량과 이용패턴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범위가 다소 지역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강내원(2013)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2030세대와 4050세대로 구분하여, 각 세대집단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제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김명혜(2016)는 50대 남성들의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지인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인정욕구의 충족, 호혜성 규범 만족, 유대감 형성 등 결속된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미디어를 신문으로 한정할 경우 신문 구독이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된다. 이영원(2013)은 신문구독이 친목모임, 취미활동 등 사회적 연계성과 관련이 깊음을 확인하였다. 양혜승(2015)은 지역 일간지 구독을 통한 정보 습득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지역사회 관여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디어와 사회자본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타자로서의 이주민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남북한 문제해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해 미디어가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곽정래·박승관, 2006; 금희조, 2008; 이민규·우형진, 2004; 이창현, 2000). 곽정래와 박승관(2006)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넷 이용량이 대인 신뢰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증진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금희조(2008)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축적이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며, 미디어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이준웅, 김은미, 그리고 문태준(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량은 대인 신뢰를 낮추는 동시에 제도적 신뢰를 높인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내 사회연결망 형성 방식은 기존의 이주자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폐쇄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고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최정호·박선미, 2013).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자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신뢰도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도는 사회 적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정권·최창용, 2018).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해 사회자본 형성과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적응도와와의 상관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도(대인적 신뢰도와 제도적 신뢰도)와 인적 네트워크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사회자본 증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남한사회 적응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온 주제들이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자본과 적응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미디어 이용이 이들 개념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우선 〈연구문제 1〉을 통해 미디어 이용량이 전통적으로 제시되어온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와 네트워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재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연구문제 2〉를 통해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 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통해 미디어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의 증진(혹은 감소)이 남한사회 적응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사회조사기관 닐슨에 의뢰하여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남한 입국연도를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입국하였으며 2016년 6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성인인구로 한정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7일에서 7월 24일까지 약 7주 간에 걸쳐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집체 면접조사 및 일대일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010명의 유효 표본을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이용실태를 분석한 양적연구는 대부분 200명 내외의 소표본으

로 분석을 진행했으며,²⁾ 특정 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표본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의 분석자료보다 높은 신뢰도와 대표성을 갖는다. 첫째, 1,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통일부에서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이 30,212명임을 고려하면, KDI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당시 남한에 거주하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3.3%를 조사한 표본으로 작은 크기의 표본이 가질 수 있는 편의(bias)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체계적인 사전 표본설계를 통해 모집단인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년도, 성별, 연령비에 맞추어 표본을 설정함으로써 모집단을 대표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설명변수인 미디어 이용 행태는 크게 TV 시청, 신문구독, 인터넷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TV 시청의 경우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하루 평균 몇 시간 시청하는지 물어 측정하였다.³⁾ 신문 구독 측정의 경우 우선 모든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신문기사를 읽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0’을 부여했다. 이후 신문을 읽는 응답자에게 ‘신문기사를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매일’ 중 한 개의 답변을 고르도록 한 뒤, 신문구독을 하는 날의 비율을 계산하였다.⁴⁾ 인터넷 사용 시간의 경우 응답자에게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음’, ‘한 주에 1-3회’, ‘매일 1시간 이내’, ‘매일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매일 3시간 이상’ 중 한 개의 답변을 고르도록 한 뒤, 인터넷 사용시간을 계산하였다.⁵⁾

2) 예외적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표본 크기를 가지고 양적연구를 진행한 사례로는 북한이탈주민 6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민희(2018)가 있다.

3) 본 연구는 평일과 주말에 각각 5일, 2일의 가중치를 주어 평일 TV시청시간 * 5/7 + 주말 TV시청시간 * 2/7 = 일 평균 TV 시청시간으로 계산하였다.

4) 측정 편의를 위해 한 달을 30일로 가정하여, 한 달에 한 번 읽는 경우 = 1/30, 2주에 한 번 읽는 경우 = 1/14, 1주일에 한 번 읽는 경우 = 1/7, 2-3일에 한 번 읽는 경우 = 1/2.5, 매일 읽는 경우 = 1을 부여했다.

5) 문항이 정확한 사용시간을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0, 한 주에 1-3회 이용하는 경우 1/2 (일 평균 30분 이용으로 가정), 매일 1시간 이내는 = 1, 매일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의 경우 = 2, 매일 3시간 이상의 경우 = 4를 부여하였다. 미디어 사용량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분석 후 추정 결과에 미미한 차이가 발생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내 미디어 이용의 상대적 차이와 남한 내 대인/제도적 신뢰도, 적응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미디어 이용량의 가정방식이 연구 결과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표 1. 기초통계량

Variable	Mean	SD	Min	Max	Obs.
인구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남성 (=1)	0.21	0.41	0	1	1,010
연령	42.39	12.48	19	84	1,010
북한 중학교 이상 교육 (=1)	0.24	0.43	0	1	1,010
남한 대학교 이상 교육 (=1)	0.23	0.42	0	1	1,010
임금근로자 (=1)	0.30	0.46	0	1	1,010
자영업자 (=1)	0.03	0.16	0	1	1,010
가구소득 (만원)*	156.47	122.81	20	1150	1,010
미디어 이용량					
하루 중 TV 시청시간	2.85	1.53	0	6	1,010
신문기사 보는 날의 비율(매일=1)	0.21	0.35	0	1	1,010
하루 중 인터넷 사용시간	1.14	1.20	0	4	1,010
사회자본: 대인적 신뢰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귀하는 귀하의 가족을 신뢰하십니까?	4.48	0.74	1	5	1,010
귀하는 귀하의 이웃을 신뢰하십니까?	3.54	0.90	1	5	1,010
귀하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3.61	0.89	1	5	1,010
귀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2.51	0.99	1	5	1,010
귀하는 처음 만난 북한이탈주민을 신뢰하십니까?	2.66	0.95	1	5	1,010
사회자본: 제도적 신뢰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귀하는 남한의 언론기관을 신뢰하십니까?	2.97	0.87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3.28	0.87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사법부(재판부)를 신뢰하십니까?	3.18	0.88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국회(입법부)를 신뢰하십니까?	3.04	0.89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종교기관을 신뢰하십니까?	3.03	0.97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대기업을 신뢰하십니까?	3.19	0.89	1	5	1,010
사회자본: 네트워크**					
Extensive Margins					
이플 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다(=1)	0.68	0.47	0	1	1,010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있다(=1)	0.30	0.46	0	1	1,010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있다(=1)	0.77	0.42	0	1	1,010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다(=1)	0.53	0.50	0	1	1,010
Intensive Margins					
이플 때 집안일부탁 : 북한이탈주민 수	1.39	1.81	0	20	1,010
남한주민 수	0.54	3.46	0	100	1,010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수	0.48	1.03	0	10	1,010
남한주민 수	0.16	0.63	0	5	1,010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 북한이탈주민 수	1.63	1.97	0	30	1,010
남한주민 수	0.76	3.57	0	100	1,010

Variable	Mean	SD	Min	Max	Obs.
직장구할 때 부탁할 사람 : 북한이탈주민 수	0.86	1.56	0	20	1,010
남한주민 수	0.76	3.47	0	100	1,010
체제적응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남한 입국 당시보다 민주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3.63	0.96	1	5	1,010
남한 입국 당시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3.71	0.85	1	5	1,010
남한 입국 당시보다 남한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3.83	0.90	1	5	1,010
사회적응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남한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3.05	1.06	1	5	1,010
나는 탈북 이후 남한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3.17	1.00	1	5	1,010
북한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	3.45	1.06	1	5	1,010

주: * 소득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 17명에 대해 소득의 중간값(118만 원)을 가정함.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외에도 기타 외국인도 있으나, 외국인은 그 수가 매우 적어(문화별 평균 0.03-0.06명) 분석에서 제외함

기초통계량에 대한 정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비율은 72%이며, 2014년 이후 국내입국자 중에서는 여성비율이 80% 전후를 보이는 등, 여성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79.2%로 실제 북한이탈주민 성비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연령은 평균 만 42.4세이며 만 19세부터 최고 8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남한의 고등학교에 준하는 중학교 이상 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4%였으며, 남한에 정착한 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22.6%를 차지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영업(2.7%) 보다는 임금근로(30.3%)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2.4명이며, 월 가구소득은 평균 156만원으로 2016년 기준 남한 내 2인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인 343만 원과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⁶⁾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루 평균 2.85시간을 TV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중 신문기사를 보는 날(중앙지, 지역일간지 총합)의 비율은 30일 기준 6.3일(21.1%)이었으며 하루 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평균 1.1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남한 사회에서 구축하게 된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미디어 이용을 통해 발생한 사회자본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도에 미친 영향을 순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하

6)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2인 가구의 연평균소득은 4,120만 원이다.

지만 횡단면 자료를 통해 이러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분석방법으로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사회적 신뢰도(제도적/대인적),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를 병렬적으로 분석하여 그 연결고리를 유추하며, 둘째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모형을 구성(〈그림 1〉 참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및 적응도 간의 직접적 상관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회귀분석을 통해 미디어와 신뢰도, 적응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 즉 ①→(②, ③, ④), ①→(⑤, ⑥) 관계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통해 ①→(②, ③, ④)→(⑤, ⑥)의 간접적 영향력이 고려된 관계를 파악한다. 위와 같은 단계적 분석방법은 김은미와 조성동(2012)의 연구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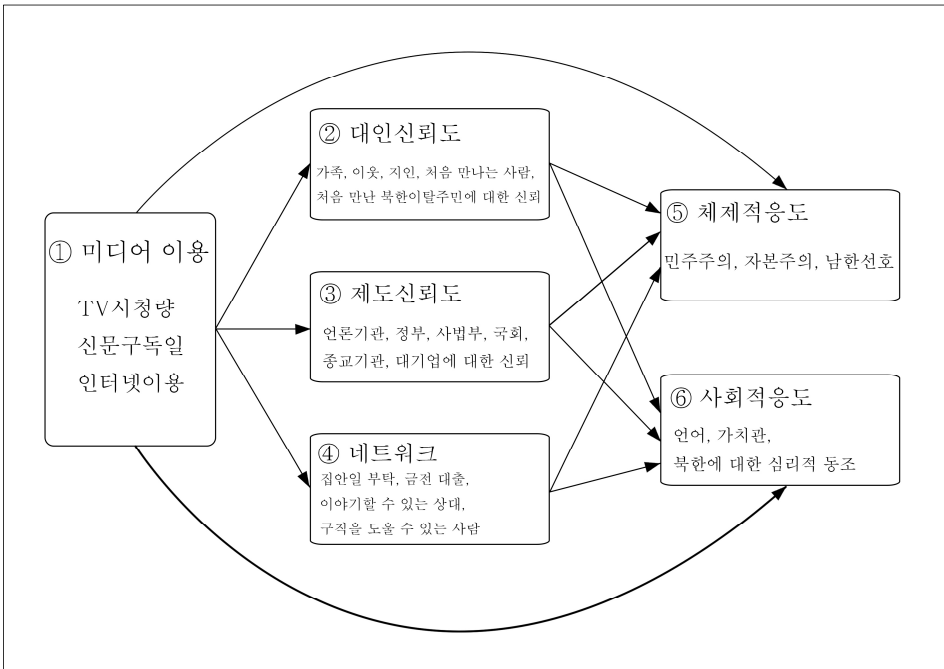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자본과 적응도에 대한 연구모형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성별, 연령, 학력, 직종, 소득을 통제한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량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크게 대인 신뢰도, 제도 신뢰도, 인적 네트워크, 체제 적응도, 사회 적응도 다섯 가지 분야로 설정하였다. 먼저 대인 신뢰도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측정한 변수로서, 가족, 이웃, 지인,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5개 지수를 통합한 통합지수를 살펴보았다.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국회, 종교기관, 대기업 등 우리 사회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여섯 개 지수를 통합한 통합지수를 만들었다. 인적 네트워크는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수' 네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외연적 변화(extensive margin)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유무 더미변수와 내연적 변화(intensive margin)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숫자의 연속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한 체제에 대한 적응도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남한에 대한 선호변화와 3개 지수의 통합지수를 계산하였다. 사회 적응도는 언어, 가치관,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수준을 조사하였고 이 또한 3개 지수의 통합지수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종속변수 중 5점 척도의 연속변수 및 통합변수는 모두 표준화하였으며, 설명변수로 사용된 미디어 사용 변수 역시 표준화하였다.

회귀분석을 진행한 이후 각각의 지수를 바탕으로 신뢰도(대인 신뢰도, 제도 신뢰도), 네트워크 및 적응도(체제 적응도, 사회 적응도)를 나타내는 잠재변수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를 회귀분석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석결과에 강건성(robustness)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미디어 이용의 직, 간접적 영향력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1) 미디어 이용과 대인적, 제도적 신뢰도

표 2. 미디어 이용량과 대인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Panel A. 대인에 대한 신뢰도						
종속변수	(1) 가족신뢰	(2) 이웃신뢰	(3) 개인적 지인	(4) 처음 만난 사람	(5) 처음 만난 북한이탈주민	(6) 대인신뢰도전체
TV시청량	-0.05 (0.03)	-0.04 (0.04)	0.02 (0.04)	0.03 (0.03)	0.00 (0.03)	-0.01 (0.03)

신문구독일수	0.03 (0.03)	-0.06* (0.04)	0.02 (0.03)	-0.02 (0.03)	-0.05 (0.04)	-0.03 (0.03)
인터넷이용량	0.13*** (0.03)	0.04 (0.04)	0.05 (0.04)	-0.05 (0.03)	-0.04 (0.04)	0.03 (0.03)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0.82*** (0.24)	-0.23 (0.28)	-0.03 (0.27)	0.31 (0.27)	0.42 (0.26)	-0.04 (0.27)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5	0.02	0.02	0.03	0.03	0.02

Panel B. 제도에 대한 신뢰도

	(1)	(2)	(3)	(4)	(5)	(6)	(7)
종속변수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재판부)	국회	종교기관	대기업	신뢰도 통합
TV시청량	0.05 (0.03)	0.02 (0.03)	0.02 (0.03)	0.06* (0.03)	0.02 (0.03)	0.06* (0.03)	0.05 (0.03)
신문구독일수	-0.06 (0.04)	-0.05 (0.03)	-0.08** (0.04)	-0.06 (0.04)	-0.07* (0.04)	-0.07** (0.04)	-0.08** (0.04)
인터넷이용량	-0.04 (0.04)	0.02 (0.04)	0.04 (0.04)	0.02 (0.04)	-0.01 (0.04)	0.03 (0.04)	0.01 (0.04)
북한중학교이상교육(=1)	-0.04 (0.08)	0.05 (0.07)	0.07 (0.07)	-0.03 (0.08)	-0.10 (0.08)	0.14* (0.08)	0.02 (0.07)
남한대학교이상교육(=1)	-0.25*** (0.08)	-0.20** (0.08)	-0.18** (0.08)	-0.22*** (0.08)	-0.08 (0.08)	-0.19** (0.08)	-0.24*** (0.08)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0.17 (0.26)	-0.02 (0.26)	0.11 (0.26)	0.36 (0.25)	0.44* (0.23)	-0.26 (0.26)	0.18 (0.24)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5	0.06	0.04	0.03	0.05	0.02	0.06

주: 종속변수의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한 값을 표준화 하였음. TV 시청량, 신문구독일수, 인터넷 이용량은 표준화한 값임. 이외에 성별, 연령, 학력, 직종,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음 (Other Controls). 괄호 안 숫자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임

*** $p < .01$, ** $p < .05$, * $p < .1$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량과 남한 내 대인에 대한 신뢰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다변량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적용)을 통해 <표 2>의 Panel A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미디어 이용량과 대인 신뢰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량과 남한의 주요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

해 <표 2>의 Panel B에 정리하였다. 우선 TV 시청량은 주요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TV 시청량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국회와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0.06 표준편차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총 6개의 신뢰도 변수를 모두 통합한 경우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못하였다. 신문구독은 반대의 경우를 보이는데, 신문구독 일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사법부, 종교기관,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0.08, 0.07, 0.07 표준편차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고, 통합 신뢰도의 경우도 0.08 표준편차만큼 낮게 측정되었다.

2) 미디어 이용과 인적 네트워크

표 3. 미디어 이용량과 인적 네트워크 (Extensive Margins)

	(1)	(2)	(3)	(4)
종속변수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다(=1)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있다(=1)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있다(=1)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다(=1)
TV 시청량	-0.01 (0.02)	-0.01 (0.02)	-0.02 (0.01)	-0.00 (0.02)
신문구독일수	0.04** (0.02)	0.05*** (0.02)	0.02 (0.01)	0.02 (0.02)
인터넷이용량	0.02 (0.02)	-0.00 (0.02)	0.03* (0.01)	0.03* (0.02)
북한중학교이상교육(=1)	0.01 (0.04)	-0.06* (0.03)	-0.02 (0.03)	0.04 (0.04)
남한대학교이상교육(=1)	0.03 (0.04)	0.07* (0.04)	0.07** (0.03)	0.06 (0.04)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Mean dep. Var	0.68	0.30	0.77	0.53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4	0.05	0.03	0.03

주: TV 시청량, 신문구독일수, 인터넷 이용량은 표준화한 값임. 괄호 안 숫자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임.

*** $p < .01$, ** $p < .05$, * $p < .1$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량이 인적 네트워크의 외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표 3>에서 총 4개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V 시청량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 변수의 외연적 변화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흥미롭게도 모든 변수의 계수 값이

매우 작지만 음수 값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TV 시청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최소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 결과 TV 시청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20여 년 전 초창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창현(2000)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통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들로 갈수록 TV 시청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문구독의 경우, 구독일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애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4%p. 만큼 높게 나타나며,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 역시 5%p. 만큼 높게 나타난다. 신문구독이 인적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해 신문구독을 하게 되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신문구독일수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TV 시청량이 높은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이용량의 증가는 애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인이 존재할 확률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인터넷 이용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확률과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10% 유의수준 하에서 각각 3%p. 만큼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 미디어 이용량과 인적 네트워크 (Intensive Margins)

종속변수	(1)		(2)		(3)		(4)		(5)		(6)		(7)		(8)	
	애플 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TV 시청량	-0.02 (0.03)	-0.02 (0.02)	-0.02 (0.03)	-0.08*** (0.03)	0.02 (0.03)	-0.04** (0.02)	0.07** (0.04)	-0.02 (0.02)								
신문구독일수	0.11*** (0.03)	0.10* (0.06)	0.10** (0.04)	0.07* (0.04)	0.05 (0.03)	0.12* (0.06)	0.06 (0.03)	0.12** (0.06)								
인터넷이용량	0.03 (0.03)	0.08 (0.07)	0.02 (0.04)	0.01 (0.04)	0.12** (0.05)	0.10 (0.07)	-0.01 (0.04)	0.10 (0.07)								
북한중학교이상교육(=1)	-0.00 (0.07)	-0.00 (0.07)	-0.03 (0.08)	0.03 (0.08)	0.02 (0.08)	0.01 (0.07)	0.00 (0.08)	0.05 (0.07)								
남한대학교이상교육(=1)	0.22** (0.09)	0.03 (0.09)	0.27*** (0.10)	0.26*** (0.09)	0.35*** (0.11)	0.10 (0.09)	0.21** (0.09)	0.02 (0.09)								

	(1)	(2)	(3)	(4)	(5)	(6)	(7)	(8)
종속변수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0.26 (0.25)	0.12 (0.27)	-0.31 (0.27)	-0.40* (0.24)	-0.07 (0.22)	0.07 (0.27)	-0.09 (0.24)	-0.03 (0.24)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6	0.03	0.07	0.04	0.05	0.04	0.03	0.04

주: Column (1)-(8)의 종속변수의 경우 응답한 사람 수를 표준화했음. TV 시청량, 신문구독일수, 인터넷 이용량은 표준화한 값임. 이외에 성별, 연령, 직종,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음(Other Controls, 통제변수는 모두 <표 2>의 회귀분석과 같음). 괄호 안 숫자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임 *** $p < .01$, ** $p < .05$, * $p < .1$

<표 4>는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량이 인적 네트워크의 내연적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와 남한 주민 네트워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체로 인적 네트워크의 외연적 변화 분석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우선 TV 시청량은 4가지 인적 네트워크 변수 대부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TV 시청량과 인적 네트워크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주민 네트워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TV 시청량이 1 표준편차(매일 1.5시간)만큼 늘어날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남한주민의 수는 0.05명 감소하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남한주민의 숫자 역시 0.16명 감소하게 된다.⁷⁾ 반면 신문구독일수는 네 가지 인적 네트워크 변수 모두와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와 남한주민 네트워크 모두에서 나타남으로서 신문 구독자들이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모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 <표 3>의 결과와 같이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 SNS 사용이 북한이탈주민 내에서의 소통에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타 통제변수 중에는 ‘교육’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남한에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적네트워크가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에서의 교

7) 종속변수가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계수 값과 표준편차를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수 있는 남한사람 수의 경우 $-0.08 * 0.63 = -0.05$ 로 계산된다.

육경험은 네트워크 형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이를 통해 남한에서
 의 교육 경험만이 남한 내 인적 사회자본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미디어 이용과 체제 및 사회 적응도

표 5. 미디어 이용량과 남한 체제 및 사회에 대한 적응도

Panel A. 남한체제에 대한 적응도				
	(1)	(2)	(3)	(4)
종속변수	남한 입국 당시보다 민주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남한 입국 당시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남한 입국 당시보다 남한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체제 적응도 통합
TV 시청량	-0.04 (0.03)	-0.02 (0.04)	-0.01 (0.03)	-0.03 (0.04)
신문구독일수	0.05 (0.03)	0.02 (0.04)	-0.04 (0.04)	0.01 (0.04)
인터넷이용량	0.01 (0.04)	0.08* (0.04)	0.07** (0.04)	0.07* (0.04)
30대(=1)	0.16 (0.11)	0.07 (0.10)	0.24** (0.10)	0.21** (0.10)
40대(=1)	0.33*** (0.10)	0.18* (0.10)	0.14 (0.10)	0.29*** (0.10)
50대(=1)	0.32*** (0.11)	0.18 (0.11)	0.22** (0.11)	0.32*** (0.11)
60대이상(=1)	0.59*** (0.15)	0.45*** (0.15)	0.66*** (0.14)	0.75*** (0.15)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Constant	-0.39 (0.26)	-0.11 (0.27)	-0.55** (0.26)	-0.47* (0.26)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6	0.02	0.04	0.04

Panel B.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도				
	(1)	(2)	(3)	(4)
종속변수	남한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나는 탈북 이후 남한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	사회적응도 통합
TV 시청량	-0.04 (0.03)	-0.01 (0.03)	-0.06* (0.03)	-0.05 (0.03)

신문구독일수	0.16*** (0.03)	0.06* (0.04)	0.08** (0.03)	0.14*** (0.03)
인터넷이용량	-0.08** (0.04)	-0.03 (0.04)	0.03 (0.04)	-0.04 (0.04)
30대(=1)	-0.20* (0.10)	0.00 (0.10)	0.19* (0.10)	-0.00 (0.10)
40대(=1)	-0.32*** (0.10)	-0.17* (0.10)	0.05 (0.10)	-0.20** (0.10)
50대(=1)	-0.40*** (0.11)	-0.23** (0.11)	0.09 (0.11)	-0.25** (0.11)
60대이상(=1)	-0.47*** (0.15)	0.08 (0.16)	0.41*** (0.15)	0.01 (0.15)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Constant	-0.29 (0.26)	-0.45* (0.26)	-1.08*** (0.26)	-0.84*** (0.25)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7	0.03	0.05	0.07

주: Panel A와 B의 Column(1)-(4) 종속변수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한 값을 표준화하였음. TV 시청량, 신문구독일수, 인터넷 이용량은 표준화한 값임. 이외에 성별, 학력, 직종,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음(Other Controls, 통제변수는 모두 <표 2>의 회귀분석과 같음). 괄호 안 숫자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임 *** $p < .01$, ** $p < .05$, * $p < .1$

미디어 이용과 체제 적응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5>의 Panel A에 정리하였다. 우선 인터넷 이용량과 체제 적응도 간의 양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계수 값을 살펴보면 영향력의 크기가 큰 편은 아니며 유의성 역시 높지 않았다. 한편 체제적응도는 연령대에 따른 적응도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량보다는 연령대 간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체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60대 이상일 경우 체제 적응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anel B에서는 미디어 이용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우선 TV 시청량은 모든 분석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구독일수는 정반대로 양의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신문구독일수가 1 표준편차 증가하게 되면 남한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답할 확률이 0.16 표준편차 증가하며, 0.08 표준편차만큼 북한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고 답할 확률이 높아진다. 신문구독 1 표준편차 증가 시 적응도 통합 지수도 0.14 표준편차 증가하는 등, 신문구독일수와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 간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TV 시청량의 증가는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도에 적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신문 구독량의 증가는 남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켜 적응을

듣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앞서 체제 적응도와 유사하게 세대 간 남한사회 적응도의 차이가 확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의 언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으며, 4, 50대의 경우 남한사회의 가치관에 다소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고령층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남한사회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8)

4)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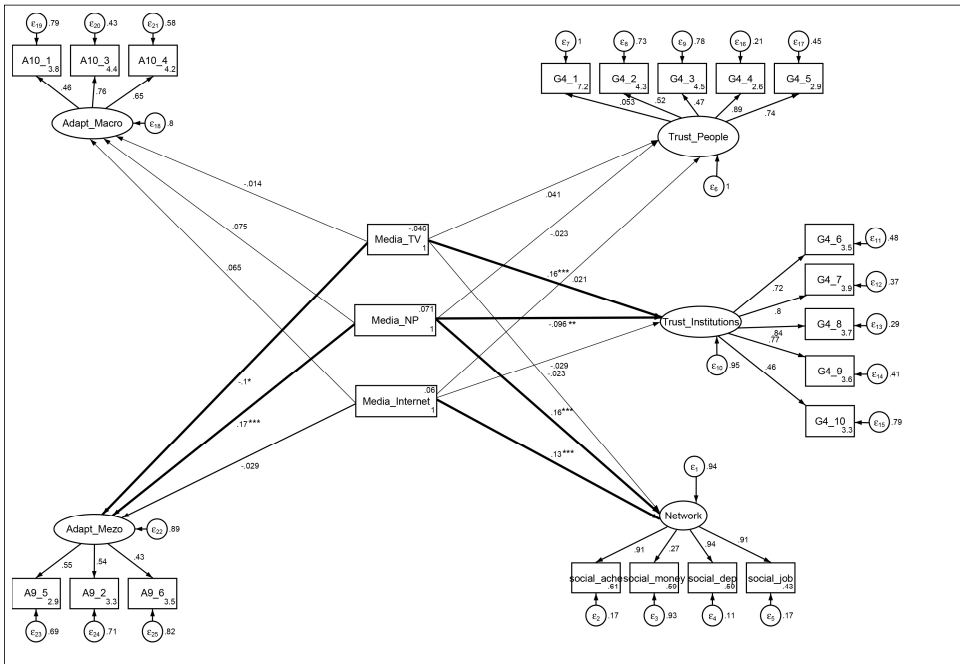


그림 2. SEM 분석 결과: 미디어의 직접적 효과

주: TV시청, 뉴스구독, 인터넷이용은 각각 Media_TV, Media_NP, Media_Internet임. 대인 신뢰도, 제도 신뢰도, 대인 네트워크는 각각 Trust_People, Trust_Institutions, Network임. 체제 적응도 및 사회적응도는 각각 Adapt_Macro, Adapt_Mezo 로 표시하였음.

8) 이는 일반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바대로 남한 사회의 60대 이상 고령층이 경험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혼란, 보수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와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 등과 유사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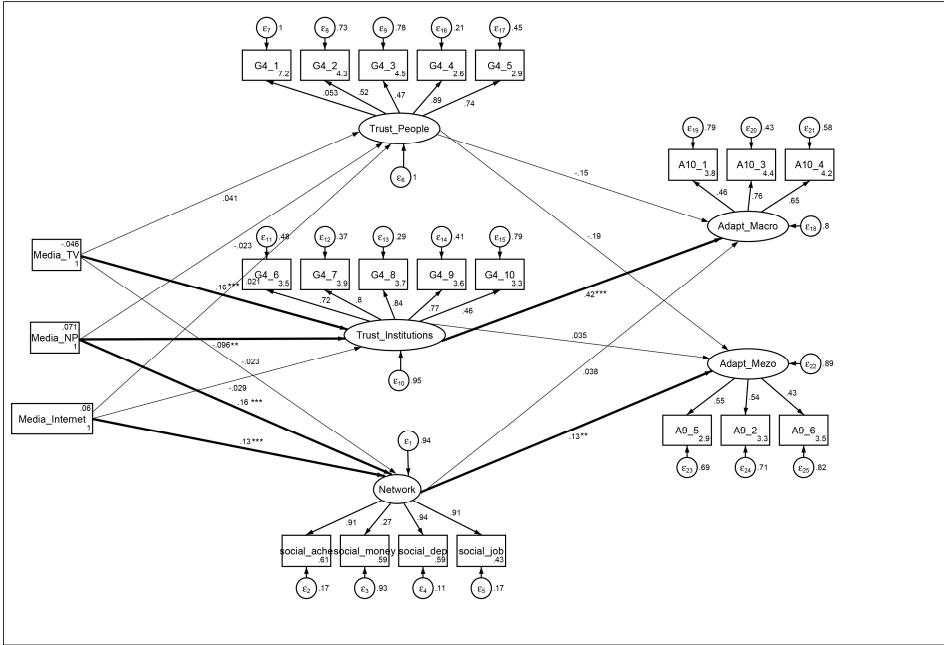


그림 3. SEM 분석 결과: 미디어의 간접적 효과

주: 변수 설명은 <그림 2> 참조

다음으로 미디어 사용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와 <그림 3>으로 정리하였다. 그림을 두 개로 나누어 제시하는 이유는 결과가 복잡하여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한 것이다. 우선 잠재변수 별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잠재변수 생성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를 크롬바흐 알파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인신뢰도 지수 5개: 0.72, 제도신뢰도 지수 5개: 0.86, 대인네트워크 지수 4개: 0.88, 체제적응도: 0.64, 사회적응도: 0.56,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롬바흐 알파가 0.7-0.8 수준으로 대체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적응도 지수의 크롬바흐 알파는 0.5-0.6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위 분석은 엄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보다는 간접 효과를 보기 어려운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적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수용 불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형적합도(Goodness of fit)를 판단할 주요 지수를 분석한 홍세희(2000)는 RMSEA가 0.08 미만, CFI와 TLI가 0.9 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형적합도 결과는 카이제곱 검정: 858.74, RMSEA: 0.067, CFI 0.878, TLI 0.854를 보였다. RMSEA가 0.08 미만이며 CFI 와 TLI가 0.9 근방이라는 점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임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는 회귀분석보다 변수 간 유의한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였다. 우선 미디어와 신뢰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디어 사용량은 회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 신뢰보다 제도신뢰와 관계가 깊었다. 제도신뢰도는 TV시청과는 양의 유의한 관계, 신문 구독과는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신문구독과 인터넷 사용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체제 적응도의 경우 미디어의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주목할 점은 회귀분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디어 이용이 제도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제적응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TV 시청을 통한 제도에 대한 신뢰 상승은 체제 적응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신문구독을 통한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은 체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도의 경우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TV 시청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응도와 약한 음의관계를 보였다. 신문 구독은 사회적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대인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유의한 양의 효과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신문 구독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회적응도 향상에 도움이 되며, 대인네트워크의 향상을 통해서도 사회적응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의 경우 사회적응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으나 대인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가 극심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북한이탈주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등 이들의 삶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상당하다. 학술적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지만 매우 이질적인 정치체제와 문화를 경험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이며, 이로 인해 이주민 연구에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미디어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이러한 동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형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사회자본의 구체적 구성요소로 남한사회에서의 대인적/제도적 신뢰도, 인적 네트워크를 상정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체제 및 사회 적응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6. 주요 분석결과 요약

		TV 시청	신문	인터넷	비고
대인신뢰도	회귀분석				
	SEM 분석				
제도신뢰도	회귀분석	+	—		
	SEM 분석	+++	—		
인적네트워크	회귀분석	—	++	+	
	SEM 분석		+++	+++	
체제적응도	회귀분석	-		+	
	SEM 분석 (직접효과)				
	SEM 분석 (간접효과)	++	—		TV와 신문 모두 제도신뢰도를 통해 영향
사회적응도	회귀분석	-	+++	-	
	SEM 분석 (직접효과)	-	+++		
	SEM 분석 (간접효과)		+++	+++	신문과 인터넷 모두 대인네트워크를 통해 영향

주: + 숫자가 많을수록 양의 관계가 강하며 - 숫자가 많을수록 음의 관계가 강함 + 나 - 와 같이 한 개인 경우는 그 영향력이 약한 편이며(혹은 유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일관성을 보임), +++이나 —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크고 매우 유의한 편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16년에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성인 북한이탈주민 1,01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은 대체로 같은 분석결과를 보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이용은 제도에 대한 신뢰,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적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매체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다. 둘째, 미디어 이용(TV, 신문)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체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신문 매체는 사회적응과 직, 간접적인 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TV 시청은 남한 내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사회 적응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한사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위 결과를 종합하면 TV 시청과 남한사회 적응 및 사회자본 축적 간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매커니즘을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로, TV가 북한이탈주민이 비판적 시각과 선별적 정보수용 능력과 같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주요한 덕목을 갖추는 것을 방해해 왔다는 점이다. TV가 시청자로 하여금 일방향적, 무비판적인 정보수용을 유도하는 매체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다른 매커니즘으로, TV시청과 인적네트워크, 적응도 간의 관계를 퍼트남(Putnam, 1995)의 주장과 연결지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TV 시청이 사회참여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사회자본을 저해할 수 있다는 퍼트남(Putnam, 1995)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TV 시청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저하는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속도도 더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매커니즘의 논리와는 정반대인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한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줄이거나 단절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TV 시청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쪽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 결코 긍정적인 미디어 수용 현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신문구독의 경우 TV 시청과 대체로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신문구독 일수는 남한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남한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적응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문구독을 통해 얻게 되는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한국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며,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유추가 가능한 지점이다. 한편 신문 구독과 인적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구독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아플 때 집안 일을 부탁'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매우 사적이면서도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시 흥미로운 결과다. 신문구독과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신문구독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신문구독자들과 지역 커뮤니티 간의 접촉빈도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신문구독이 지역사회활동, 친목모임, 동창회, 취미활동 등 커뮤니티 가입과 관련 있음을 입증했다(양혜승, 2015; 이영원, 2013; Jeffres et al., 2007). 초기엔 이러한 모임을 통한 관계가 피상적일 수 있지만 활동의 빈도와 기간이 증가할수록 구성원 간의 친밀감 역시 증가하여 깊은 수준의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커뮤니티 가입이 아니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문을 읽으며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문구독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간접적이지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McLeod et al., 1996; Yamamoto, 2011). 본 연구에서 신문구독이 남한사회 언어 이해, 가치관 형성 등 사회적응도 형성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

사회신뢰 수준에 있어서 TV시청과 신문구독이 보이는 상반된 결과는 특정 미디어 수용자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TV 시청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중시청자의 경우 비판적 시각이 결여된 채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신문구독은 해독의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 구독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로 남한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등 교육자들이 종교기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학력과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국가, 언론기관, 기업 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신문구독일수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낮은 사회 신뢰도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 오히려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적응도에 있어서 TV 시청행위와 신문 구독행위의 상반된 결과는 앞서 신문구독일수와 남한 사회 신뢰도간 음의 상관관계가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통해 깊은 수준의 적응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을 ‘고등교육을 받고 보편적 시민의식이 있는 남한 구성원의 평균적 사회화’ 정도로 가정한다면,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은 오히려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맹목적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류 미디어 수용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회자본 축적과 직결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한에서만 쓰이는 용어, 특히 외래어나 전문용어에 대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혜진·김영주, 2013; 이주호·배정환, 2011; 전영선, 2014).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사/생활 용어들은 정규교육을 받은 남한사람에게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이들 용어문제가 수용과정에서 대단히 높은 진입장벽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시청각 정보가 실시간으로 동원되는 TV 등 영상매체보다는 신문과 같은 활자매체일수록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영상매체(TV 드라마, 예능, 뉴스)보다는 활자매체(책, 신문, 잡지의 분석, 기획기사, 칼럼 등)일수록 더욱 분석적이고 양질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영상매체에 의존할 경우 남한사회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자본 축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보여주는 신문구독과 사회자본 간의 양적 상관관계는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실는다.

반면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 예상과 다르거나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애초 양방향 소통이라는 특성을 가진 인터넷 이용이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과 인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대해서만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관계도 비교적 피상적이고 공적인 관계에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인터넷 이용량은 대인 및 제도 신뢰도와는 일관되거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이용량이 대인 신뢰도를 증진하는 것으로 주장한 곽정래와 박승관(2006)의 연구와 인터넷 이용량이 오히려 대인 신뢰도를 낮추지만 제도적 신뢰도는 높인다고 결론내린 이준웅 외(2005)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후속 연구에서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 언어 이해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다소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특성상 일방향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기보다 자신의 언어를 이용해서 소통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과,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주로 축약어, 비속어, 외래어 등이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의 60대 이상 노인들은 TV나 신문의 언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디어의 특성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언어를 이해하는데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의 경우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TV나 신문구독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네트워크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추론된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가 가사일을 부탁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등의 깊은 신뢰관계를 요하는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대화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그것에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결과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는 유지웅(2007)의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제한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본인들의 고민을 공유한다는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정 부분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과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맺는 네트워크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얻기보다는 취업 관련 사이트나 정보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얻는 유익에 대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특정 사회자본 축적 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단순히 정보 전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적 네트

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자본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양식이 분절화 된 근대 이후 미디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획일화된 정체성을 재생산하고 재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주재원, 2016).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축적 역시 이주민으로서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종편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된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선정적, 신변잡기에 가까운 콘텐츠들이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지 의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남한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이주민들이 TV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에 일방향적,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지 않음을 어느 정도 방증한다. 미디어의 정보제공 및 보도양식이 이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짚어보며 추후 연구과제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2016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엄밀한 인과관계를 구한 것은 아니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은 하였으나 추후에도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적인 인터뷰, 혹은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을 밝혀 나가는 작업도 중요하다. 둘째로, 자료가 조사될 당시(2016년)의 역사적 특수성(남북관계 경색, 종편채널을 통해 북한, 새터민 관련 프로그램의 범람, 정권 이념, 언론의 보도방식 등이 남한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내용의 한계로 인해 각 미디어 내 구체적인 콘텐츠 소비량과 사회자본 축적 간 관계에 대한 관계를 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래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라 할 수 있는 곽정래와 박승관(2006)에 비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춘 표본자료(large and representative sample)를 분석한 반면 조사문항은 미디어 연구와 관련하여 세밀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보인다. 곽정래와 박승관(2006)의 경우, 조사 참여자들에게 122편의 TV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하고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여 이용패턴을 파악하였으며 신문 및 인터넷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본 열독면 / 주요 이용항목 등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TV에 한해 주요 시청목적(뉴스, 드라마, 예능 등)에 대해서만 1, 2, 3순위를 조사했을 뿐, 다른 미디어의 구체적인 이용실태를 조사하지 못했다.⁹⁾ 이처럼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미디어 이용시간, 또는 빈도만을 변수로 활용하였으

9) 구체적인 콘텐츠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소비량과 사회자본 간 뚜렷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나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수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학계에서나 정부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간 관계를 추적하며 미디어 수용 트렌드 등을 파악한다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순전히 미디어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각 미디어를 수용하는 집단이 애초에 서로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미디어별로 제공되는 콘텐츠(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지 등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중 어느 것의 영향력이 더 크냐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자본 축적과 미디어 간 관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원 (2005). Unraveling the effects of media us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한국방송학보>, 19권 3호, 179-201.
- 강내원 (2013). 세대집단의 매체이용과 사회자본이 제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3권 4호, 5-42.
- 강태영 · 황유선 · 강경미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 텔레비전 시청 행위와 사회 적응.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82-102.
- 곽정래 · 박승관 (2006). 새터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415-439.
- 금희조 (2008). 미디어와 사회 자본.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1호, 128-149.
- 김동윤 (2009).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언론과학연구>, 9권 4호, 38-64.
- 김동윤 · 이강형 (2012). 미디어와 사회자본의 관계.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78-112.
- 김명혜 (2016). 50대 중년남성의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권 1호, 36-70.
- 김병로 (2014).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통일문제연구>, 26권 1호, 1-33.
- 김은미 · 조성동 (2012). 텔레비전과 사회자본.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105-131.
- 민희 (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정서적 상태, 소셜 미디어 이용 그리고 남한생활 만족도. <정보화정책>, 25권 2호, 67-83.
- 박소라 (2008). 이민 2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정체성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6호, 237-257.
- 박정란 · 강동완 (2012).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통일정책연구>, 21권 1호, 239-270.
- 박진영 · 강태영 (2011). 매체 이용자 집단별 사회자본 상관분석: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사회참여와 인적교류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권 1호, 5-51.
- 배영 (200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논의의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2호, 54-81.
- 신혜진 · 김영주 (2013). 북한이탈주민의 외래어 지식과 개별 변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어의미학>, 42호, 57-79.
- 양혜승 (2015). 지역 미디어 활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지역 사회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과 미국 수용자의 차이.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365-394.

- 염유식·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45권 2호, 91-129.
- 유지용 (200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통일문제 연구>, 19권 1호, 145-175.
- 이민규·우형진 (2004).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248-273.
- 이영원 (2013). 지역 정체성과 사회자본 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중매체와 SNS 이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636-662.
- 이재신·이영수 (2012, 6월). <사회자본과 SNS>,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이재열 (1998, 6).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37호, 65-93.
- 이주철 (2003).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15권 2호, 315-338.
- 이주호·배정환 (2011).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권 7호, 335-344.
- 이준용·김은미·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234-261.
- 이창원 (2000).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151-186.
- 전영선 (2014).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 <통일인문학>, 58호, 99-126.
- 정권·최창용 (2018). 탈북주민의 가치관,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4월호, 41-63.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0권 1호, 33-62.
- 정병호 (2014).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 49-100.
- 정의철·정미영 (2018). 베트남 이주여성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가 문화적 시민권 구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2권 5호, 136-172.
- 정의철·정용복 (2016). 다문화 재현과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 <한국언론학보>, 60권 4호, 39-67.
- 주재원 (2016). <민족주의와 미디어의 공공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주재원 (2018). 매개된 북한이탈주민과 타자화의 문화정치: KBS 와 TV 조선의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권 1호, 5-40.
- 최정호·박선미 (201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 요인-경기도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

- 학회지}, 16권 3호, 71-85.
- 최진희·주정민 (2014). 결혼 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과 문화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8권 2호, 7-39.
- 통일부 (20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09358호.
- 통일부 (2018).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현황. URL: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한국방송공사 통일방송연구소 (1998) 귀순, 탈북자들의 남북한 방송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보고서.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권 1호, 161-177.
- Ball-Rokeach, S. J. (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4), 485-510.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erry, J. W., Kim, U., & Boski, P. (198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of immigrants. In Y. Kim & W. B. Gudykunst (Eds.),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pp. 62-89). Newbury Park, CA: Sage.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241-258).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eFleur, M. L., & Ball-Rokeach, S. J. (1989). *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5th Ed.). NY: Longman.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In L. E. Harrison, & S. P. Huntington (Eds.),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pp. 98-111). New York, NY: Basic Books.
- Gao, G. & Gudykunst, W. B. (1990). Uncertainty, anxiety,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3), 301-317.
- Georgiou, M. (2006). *Diaspora, identity and the media: Diasporic transnationalism and*

mediated spatialities. New York NY:Hampton Press.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 1435-1446.
- Jeffres, L., & Hur, K. (1983). Media use for personal identification: Linking uses and gratifications to culturally significant goals. *Mass Communication Review*, 10, 6-12.
- Jeffres, L. W., Lee, J. W., Neuendorf, K., & Atkin, D. (2007). Newspaper reading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Newspaper Research Journal*, 28(1), 6-23.
- Kapor, M. (1993). Where is digital highway really heading? *Wired*, 1(3), 53-59.
- Kim, Y. Y. (1977). Communication patterns of foreign immigrants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 66-77.
- Kim, Y. Y., & Gudykunst, W. B. (1988).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Newbury Park, CA:Sage.
- Lee, W. N., & Tse, D. K. (1994). Changing media consumption in a new home: Acculturation patterns among Hong Kong immigrants to Canada. *Journal of Advertising*, 23(1), 57-70.
- McLeod, J. M., Daily, K., Guo, Z., Eveland Jr, W. P., Bayer, J., Yang, S., & Wang, H. (1996). Community integration, local media use, and democratic processes. *Communication Research*, 23(2), 179-209.
- Moon, S. J., & Park, C. Y. (2007). Media effects on acculturation and biculturalism: A cas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Koreatow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0(3), 319-343.
- Moon, S., Kim, J., & McLeod, G. (2003). The impact of mass media on the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3-27.
- Norris, P. (1996). Does television erode social capital? A reply to Putnam.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9(3), 474-480.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Ríos, D. I., & Gaines Jr, S. O. (1998). Latino media use for cultural maintenanc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4), 746-761.
- Schwartz, E., & Oram, A. (1996). *Netactivism: How citizens use the internet*. Boston, MA: O'Reilly & Associates, Inc.
- Shah, D. V. (1998). Civic engagement, interpersonal trust and television use: An individual level assessment of social capital. *Political Psychology*, 19, 469-496.
- Shah, D. V., McLeod, J. M., & Yoon, S. H. (2001). Communication, context and community: An exploration of print, broadcast and internet influences. *Communication Research*, 28, 464-506.
- Shanahan, J., & Morgan, M. (1999). *Television and its Viewers: Cultivation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roull, L., & Kiesler, S. (1991). *Connections: New Ways of Working in the Networked Organ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Subervi-Velez, F. A. (1986). The mass media and ethnic assimilation and pluralism: A review and research proposal with special focus on Hispanics. *Communication Research*, 13(1), 71-96.
- Tarrow, S. (1998). Fishnets, internets, and catnets: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collective action. In M. P. Hanagan, L. P. Moch, & W. te Brake (Eds.), *Challenging authority: The historical study of contentious politics* (pp.228-244).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alker, D. (1999). The media's role in immigrant adaptation: How first-year Haitians in Miami use the media. *Journalism & Communication Monographs*, 1(3), 158-196.
- Wellman, B. (1999). *Networks in the global village*. Boulder, CO: Westview.
- Wellman, B. (2001). Physical place and cyber place: The rise of personalized networ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1).
- Woo, H. J., & Dominick, J. R. (2003). Acculturation, cultivation, daytime TV talk sho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1), 109-127.

Yamamoto, M. (2011). Community newspaper use promotes social cohes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32(1), 19-33.

Yaple, P., & Korzenny, F. (1989). Electronic mass media effects across cultures. In W. B. Gudykunst & B. Mody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295-317). Newbury Park, CA: Sage.

최초 투고일 2019년 4월 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7월 31일

논문 수정일 2019년 8월 4일

Abstract

North Korean Refugees' Media Use and Social Capital

A Focus on Trust, Network, and Adaptation

Jae Won Joo

Associate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Booyuel Kim

Assistant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Jongwoo Chung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North Korean refugees are adapting to a new society through their active media use,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n refugees' behaviors on media use and its association with trust (in terms of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trust), network, and their degree of adapt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For this research purpose, we analyze the survey data for 1,010 representative North Korean refugees conduct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2016.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dia use is related to institutional trust, human network formation, and adaptation but its relations are differential by media type. Second, media use in terms of TV or newspaper is indirectly related to adaptation through institutional trust. Third, there is a direct association between newspaper and adaptation while newspaper and internet are indirectly related to adaptation through human net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 impact of media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imple information sharing as well as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human network in a new society.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Media use, Social capital, Trust, Network